

곡성돌 20개월만에 15억 매출

쌀·한우·한돈 인기...신선도·가격·마케팅, 소비자에 신뢰
총 33회 기획전 매출 증대 효과...한과·김부각도 매출 상위권

곡성군 온라인 쇼핑사이트인 '곡성돌'이 개설 20개월만에 누적 매출 15억원을 돌파했다.
곡성군은 지난 2023년 9월 시작된 '곡성돌'이 쌀, 한우·한돈 등의 인기 상품에 힘입어 1년 8개월 만인 지난 14일 누적 매출 15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같은 성과는 신선하고 품질 좋은 곡성군의 특산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다양한 마케팅과 이벤트(기획전)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관심과 신뢰를 쌓아온게 주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개월간 총 33회 시행된 기획전은 평시 매출보다 5~9배 정도 증대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개설 첫째 4개월간 총 매출액 2억5000여만원 중 기획전을 통한 매출이 2억3000만원으로 평시(2500여만원)보다 무려 9배 정도의 수익을 거뒀으며, 2024년(총매출 9억1000여만원)에는 평시(1억5000여만원) 보다 5배 정도 상승한 7억6000여만원의 기획전 매출을 기록했다.
또 품목별로는 쌀, 한우·한돈, 한과·김부각이 매출 상위권에 올랐다. 이중 쌀은 4억5000여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해 전체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인 30%를 차지했으며, 한우·한돈이 16억3000여만원으로 매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한과·김부각(1억900여만원) 7%, 사과(1억100여만원) 6%,

멜론·딸기 5%, 장어 4% 순이었다.
특히 쌀의 경우 유기농 쌀인 '백세미(품종·골드퀸 3호)'가 소비자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
'곡성돌'의 특징은 단순한 쇼핑몰이 아닌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매출이 향상된 임점 업체들은 아동을 위한 기부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 사회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 곡성군의 활인 지원없이 업체의 자체 힘으로 진행되는 특별 기획전도 타 쇼핑몰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곡성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큰 사랑을 보여준 소비자들께 감사인사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고 품질의 상품으로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곡성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곡성=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광양 청년 월 10만원씩 3년 적립하면 두배 지급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21일~5월 2일까지 신청

광양시가 청년들의 미래 준비와 안정적 자산형성을 위해 2025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은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시에서 동일 금액을 매칭 지원해 만기 때 최대 72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양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45세(1980. 1. 1.~2007. 12. 31. 출생자) 이하의 청년 노동자·사업자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

득 120% 이하(1인 가구 기준 약 월 287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사업 기 수혜자, 국가 및 지자체 자산형성사업 수혜자 및 참여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군 복무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이며,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접수 희망자는 신청 기간 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서류를 접수하면 되며, 우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서류를 등기로 보내야 한다. 단,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신청 기간 내 도착분까지만 접수된 것으로 본다.

광양시는 오는 7월 중 최종 대상자를 확정해 적립을 시작할 예정이다.
조동수 광양시 청년일자리과장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이 결혼, 주거, 학자금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기초자산 형성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의 신청 기간,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 사항에서 안내돼 있으며, 궁금한 점은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061-797-1994)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고흥 녹동항 드론쇼' 첫 공연이 지난 19일 녹동항 바다정원 일원에서 펼쳐졌다.
이번 드론쇼는 700대의 드론이 '불바람 따라'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고흥의 싱그러운 봄을 형상화하며 환상적인 장관을 연출했다.
드론쇼뿐만 아니라, 지역 아티스트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버스킹 공연, 오리퇴치 상용 드론

비행 시연 등 볼거리 풍성한 공연을 마련해, 가족 단위 관람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 녹동항 드론쇼는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고흥의 문화와 정서를 담은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고흥만의 매력을 담은 드론 콘텐츠를 통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 고흥 녹동항 드론쇼는 4월 19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7개월간 매주 토요일 저녁, 녹동항 일원에서 진행된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군민과 하나되는 별밤 버스킹 공연'과 연계해 군청 앞 고흥군민광장에서도 드론쇼가 개최될 예정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여수시, 3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소비자 선정 '마이스산업도시' 분야...지난해 1470억원 경제효과



여수시가 3년 연속 소비자가 선정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차지했다. <사진>
여수시는 지난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마이스 산업도시' 분야에서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유·무형 제품 또는 기업·단체 브랜드에 대한 ▲최초상기도 ▲인지도 ▲마케팅활동 ▲브랜드 선호도 등에 대해 온라인 소비자 설문조사와 내부 인증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이로써 여수시는 지난 2023년부터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앞서 시는 지난해 MICE행사를 1262건 유치, 약 1470억 가량 경제파급효과를 창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뤘었다. 이로 인해, 올해 문제부 공모사업인 '예비 국제회의지구'에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다각적이고 차별화된 마케팅과 사업추진으로 현재까지 총 4개국(싱가폴,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 21곳의 여행업체들과 MICE공동 마케팅 및 여수 유치 등의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해 해외 MICE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여수=김창희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만습지 전경.

<순천시 제공>

'순천만습지' 생태관광 최고 인기

환경부 만족도 조사 1위...자연 보전 우수성·경관 인증

순천만습지가 최근 환경부의 '2024 생태관광 지역 방문객 만족도조사'에서 전국 28개 생태관광지역 중 '향후 방문하고 싶은 지역' 1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는 생태관광지 28곳을 대상으로 전국 2,500여 명에게 실시됐으며, 자연경관, 프로그램 운영, 지역 특색, 재방문 의향 등 총 8개 부문에 걸쳐 평가 이뤄졌다.
순천만습지는 ▲자연환경 보전 우수성 ▲프로그램/해설 만족도 ▲편의시설 이용 만족도 ▲자연환경의 아름다움과 소중함 등 전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방문 희망 순위에서는 순천만습지는 전체 응답자의 17.6%가 선택해 1위를 차지했다. 제주 저지곶자왓(15.1%), 철원 DMZ(11.1%) 등 생태관광 대표지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가장 가고 싶은 생태관광지'로 등극했다.
순천만습지는 세계 멸종 위기종인 흑두루미

절반의 서식지이며, 순천이 가진 생태와 문화적 가치를 한번에 볼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다. 시는 2009년 세계 최초로 도신내 전복대 282개를 철거하고, 조류 서식지로서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시켰다. 이후에도 다양한 생태복원사업과 해설 프로그램, 흑두루미 보호 활동 등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순천만이 경관이 아름다운 곳을 넘어,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의 방향을 제시하는 대표 사례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시민과 자연을 지키고 배우는 '생태도시 일류 순천'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세계적인 자연보전 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회원 가입을 신청했으며, 순천만습지를 통해 국제적인 생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갈 계획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 '웅치 올벼쌀' 올해 첫 모내기

15일 정도 빨리 심어 8월 수확...누룽지 등 가공 식품 인기

보성군이 지난 17일 웅치면 대산리 박순선 농가에서 2025년산 웅치 올벼쌀 생산을 위한 첫 모내기를 실시했다.
'웅치 올벼쌀'은 일반 벼보다 약 15일 정도 빠른 4월 중순 모내기를 시작하고, 완숙 이전의 찰벼만을 엄선해 수확하는 것이 특징이다.
군은 내달 초까지 약 120여 농가가 총 130ha 규모로 웅치 올벼쌀 모내기가 진행될 예정이며, 8월 중순 수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확한 쌀은 가마솥 증기로 쪄 후 햇볕에 자연 건조하는 전통 도정 방식이 더해져 쌀 고유의 풍미와 영양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웅치 올벼쌀'은 누룽지·과자·선식 등 다양한 가공식품으로도 생산되며, 현대인들의 식생활에 맞춘 고품질 웰빙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향암 효과와 다이어트 효능이 뛰어난 기능

성 쌀로 임소문을 타며, 명절 선물 및 건강 간식으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웅치 올벼쌀'은 이러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0년 농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 제71호로 등재되었으며, 현재 전국 올벼쌀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대표적인 지역 특화 작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성호 웅치면장은 "쌀값 하락과 벼 재배면적 조정 등 농가의 시름이 깊지만, 지역 농업인들의 연대와 지혜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가겠다"라면서 "웅치 올벼쌀이 전국 소비자들에게 더욱 널리 알려지고, 대한민국 대표 기능성 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보성 웅치올벼쌀 및 관련 제품은 보성군 온라인 직거래 장터 보성몰(<https://boseongmall.c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순천평화병원, 보행 재활로봇 도입

'모닝워크 S200' 보행 높이·패턴 등 조절해 맞춤 치료

의료법인 진의료재단 순천평화병원이 전남 동부권 지역 최초로 최첨단 보행 재활로봇인 '모닝워크 S200'을 도입했다. <사진>
환자의 대상과 나이 및 증상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으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된 발판 구동형 보행 재활로봇이다.
로봇 이용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며, 이를 활용하여 치료사가 확인화된 치료가 아닌 각 환자별로 맞춤형 재활치료를 제공한다.
특히 평지보행, 계단 오름내림 보행, 경사 오름내림 보행 등의 다양한 모드로 로봇을 이용할 때 환자에게 적절한 보행 높이와 거리, 패턴, 관절구동, 디딤각 및 구름각을 맞춤형으로 조절하여 실시할 수 있다.
순천평화병원은 2008년 전남 동부권 최초로 재활전문의료기관으로 개설한 이후 보호자 없는 병실(재활간호간병)과 약 100여명의 치료사, 그리고 성인재활치료센터 및 전남 동부권 유일한 소아 재활치료센터, 소아재활 낮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재활치료실 별도로 중증치료실, 언어치료실, 전산화 인지재활치료실, 연하전자극치료실 등 재활 전문병원으로 차별화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정성 순천평화병원 이사장은 "로봇지도 도입을 시작으로 순천평화병원이 전남 동부권 재활전문병원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치료 또한 극대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